

캠시스 (050110)

기업 탐방노트 | Hand Set

NR

목표주가	NR
현재주가	2,165 원
시가총액	1,293 억원
KOSDAQ (07/11)	677.09 pt

컨센서스 대비

상회	부합	하회

Stock Data

90 일 일평균거래대금	27.11 억원
외국인 지분율	2.1%
절대수익률 (YTD)	25.5%
상대수익률(YTD)	25.3%
배당수익률(19E)	0.0%

재무데이터 (IFRS 연결기준)

(십억원)	2016	2017	2018	2019E
매출액	356	424	544	650
영업이익	13	14	16	33
순이익	-28	-34	11	25
ROE (%)	-29.9	-45.0	14.8	-
PER (x)	-5.2	-4.2	12.4	5.1
PBR (x)	1.8	2.4	1.7	-

자료: 캠시스,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 2019년은 가이던스 반영

Stock Price



PER 5배 카메라 모듈업체

Analyst **이왕진** 02. 3779 8832 wangjin4268@ebestsec.co.kr

기업개요

- 캠시스는 카메라 모듈 제조 전문 업체로, 1993년 1월 설립되어 2001년 5월 상장되었다. 사업부분은 크게 스마트폰과 전장용 카메라 모듈 사업부, 전기차 사업부, 지문인식 보안 사업부 등으로 나뉘어 지지만 현재 유의미한 매출은 대부분 스마트폰용 카메라 모듈에서 발생된다. 스마트폰용 카메라 모듈의 1Q19 매출 비중은 약 99.8% 수준이다. 주요 고객군은 삼성전자이다.

투자포인트: 저렴한 멀티플 + 사업 다각화

- 동사의 투자포인트는 2가지로, 1) 동종업종 유사기업 대비 낮은 멀티플, 2) 전기차 판매 시작으로 사업 다각화 등이다. 스마트폰의 해당 카메라 탑재량이 증가하고 카메라 화소가 상승함에 따라 카메라 모듈 업체들은 유례없는 호황을 경험하고 있다. 동사의 1분기 실적은 매출액 1,728억원(yoy +61.8%), 영업이익 77억원(yoy +147.1%)으로 호실적을 기록하였으며, 하반기 역시 동사가 선도한 모델이 출시될 예정이며 양호한 실적흐름이 전망된다. 현재 동사의 연간 가이던스 및 컨센서스는 6,000억원 후반에 마진율 약 5~8%수준으로 형성되어 있다. 현재 업종 평균 멀티플은 약 8~10배 수준에서 형성되고 있는데, 2019년 예상 실적(6500/OPM 5%/세율 22%)기준 동사의 멀티플은 약 5.1배 수준으로 저렴한 수준이다.
- 동사의 8월부터 전기차 판매가 시작됨에 따라 기존 카메라 모듈에 편중된 매출 구조로부터 탈피가 기대된다. 동사는 지난 '15년도부터 전기차 CEVO를 자체 개발한 끝에 올해 8월부터 판매가 시작된다. 주목할 점은 기존 우체국, 순찰차 등 B2G와 물류, A/S 등 B2B를 타깃으로 하였으나 예상외로 레저카로 주목받으며 사전 모집자의 대부분이 B2C로 몰린 상황이다. 현재 사전 모집자는 약 3000명으로 BEP가 2000대인 것을 고려하였을 때 예상보다 빠른 턴어라운드가 기대된다.

체크포인트: 본계약과 오버행

- 동사 투자 시 체크할 점은 크게 두가지로 1) 전기차 본계약 전환 비율, 2) 오버행 흐름 등이다. 현재 사전 모집자가 약 3,000여명 수준이지만 아직 사전계약이며 본계약으로 전환되어야 실질적인 매출이 발생하게 된다. 7월중 국내 주문 수량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트래킹이 필요하다. 오버행 역시 체크해야 할 점이다. 현재 동사 CB 잔량은 약 70억, 리픽싱된 warrant가 190억 수준인 것으로 파악된다.

